

IMF위기 이후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교육과정적 고찰

박 문 식
(한남대학교)

Curricular study of university renovation programs after IMF Crisis : A Christian Perspective

Moon-Shik Park
(Hannam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IMF Crisis in Korea, several remarkable college renovation programs are undergoing in our nation. For examples, BK21 Program under the slogan of bringing up high end graduates, the NURI Program aiming for new universities in regional area as clustering nuclei, Hub-Uni for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 encouraging tailoring curriculum for a specific industry or a corporate, ABEEK and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Program requiring goal-oriented and demand-driven curricula. These programs are government initiative having massive financial merits which overhe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However, these programs have impacts on academic curriculum that may result in risks on academic education. In this study, inherent issues of influences of such programs in regard of academic curriculum will be proposed and criticized in respect of Christian worldviews. Moreover, aspects of Christian curriculum as an alternative will be suggested. That may lead to a missioner for the Cultural Mandate by getting university to create demands rather than to orient demands.

IMF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개혁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 고급인력 양성을 슬로건으로 하는 BK21사업,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누리사업, 산학협력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성과 및 수요지향 공학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공학인증과 공학혁신 등이 그 구체적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주도형으로서 그 재정적인 장점 때문에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선점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위기적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그러한 대학교육개혁 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논의되지 않은 이슈들을 도출하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또한 대학교육이 수요지향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여 문화명령의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대안적 교육과정으로서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관점을 제시한다.

I. 들어가는 말

교육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당대의 주류적 문화적 상황위에서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진다. 인류문명의 발전이라는 대 전제아래에서 교육이 문화감쇠의 지향성을 가질 수 없음을 천명한다면 교육은 반드시 미래를 지향해야 하며 따라서, 끊임없는 현상의 검토와 성찰을 통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창조를 시도하고 만들어 내야함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은 역사성의 바탕위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비전과 이념과 기술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들은 문화비판적인 식견과 사회적 책무성 및 그 피교육자들인 학생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교육과정들은 대체로 현대문화의 피상성을 의미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며, 교육자들은 분업화 되고 집중화 되어 경쟁력의 고삐로 옥죄 전문가의 좁은 길로만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는 일부 과목을 심도 있고 의미 있게 가르쳐내는 강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 외의 영역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의 문화적인 관계성과 학생의 다양한 배움의 측면을 고양할 줄 알고, 졸업 후 일생을 통하여 은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자이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제도와 공식적 교육과정은 계속 변화한다. 그런데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진정 시대에 필요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런데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가 산업정체기를 맞게 되는 IMF 이후부터 국가기관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교육관련 시책들은 과연 제대로 맞추어 가는 보드게임인가? 특히 최근 BK, NURI, 산학협력중심대학, 공학인증, 공학혁신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개혁의 바람은 과연 올바른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 계속하여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것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최근의 정부주도형 개혁시책들이 안고 있는 교육과정적 측면들을 교육적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교육개혁의 제도와 교육과정

현 세대의 정부주도의 대학교육정책의 변화의 신호탄은 BK21이었다. IMF위기의 극복과 일부 기업들에 의한 IT산업의 반짝 효과를 시금석으로 삼은 교육부는, 한국의 미래를 소위 '두뇌한국(BK21)'라고 하는 대학원중심의 고급인력의 양성에 두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논리로 국민의 세금을 집중살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수도권편중의 우려가 높았고 근본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따먹고 보자는 식의 부익부빈의 빈을 초래하고 있으며, 1차 정책이 종료되고 후속정책이 시작된 지금 과연 그 '두뇌한국'으로 가고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누리(NURI)사업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역량을 키워 지역발전 도모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교육부가 지방대학과 지방자체단체·산업체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지방핵심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산학관의 짝짓기에는 지방대학의 산업계에 대한 짝사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OECD국가 대열에 합류한 정부로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의 기업을 직접 지원할 명분도, 또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거둬나지 못한 정치적 정서상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산업을 주도할 역량도, 막대한 재정을 효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집행할 공무 행정적 소명과 역량도 갖추지 못한 실정에서 그 역할을 지역 대학에 떠맡긴 것이다.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혜로 졸업한 기름진 학생들이 누리사업에서 의도했던 사업의 일원이었던 지역 기업체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공무원, 공기업이나 청년실업자의 길로 내몰리는 현실인 것이다.

공학인증은 그 필요성을 공대 졸업생들에 대한 '산업체의 지적'과 통계적인 '이공계의 미취업'에 두고 있으며, 공식적인 결과로는 CQI(지속적 품질개선)라고 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의 공장에서 잘 알려진 '품질보증기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 기본이념을 요약하면 성과중심, 수요지향, 세계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공학인증은 관주도가 아닌 교육의 공급-수요의 일부 주체들의 자유결사적인 단체(사단법인)의 산물이었으므로 공론화의 과정과 수렴을 거친 국가의 제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관료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공학인증의 도입이 각 대학의 부각과 차별화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일류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취업을 크게 개선할 수 없다고 하는 신호를 감지한 일부 공과대학 학장들은, 또 다시 교육부-산자부-삼성의 협동전략에 말려 '공학교육혁신'이라고 하는 '맞춤식 교육과정'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위한 시책들은 각각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요소들을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응용한다면 분명히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추론컨대 좀 더 비판적인 견지에서 현재의 정부, 대학, 산업의 시스템에 의하여 BK21, NURI, 공학인증, 공학혁신 등이 국가의 미래에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간단하게 생각하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틀로 구별하면 형식은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내용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등 직업군의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국제적인 시장개방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은 제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의당 국가에서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구성은 각 대학과 학문분야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최고의 경쟁력과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주체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은 제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주체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일련의 대학교육 시책들은 제도적 선도는 없이 재정지원에 의한 교육과정의 개조에 열을 올리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국가의 먼 장래에 대한 당대의 국가적 청사진임을 감안한다면 한발자국, 한발자국을 매우 신중하게 움직여야 함이 마땅하다. 의당 교육의 제도도 변하고 교육과정도 변하여야 하지만 교육을 꼭 '혁신'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시간의 시급성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대학교육에 거친 바람을 일으켰던 일련의 국가사업들은 중

합하면 '제도'와 '교육과정'을 혼돈하는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기업들의 공과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지적인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 기업에 들어오는 데 실패한 낙오자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수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훌륭한 인재들을 골라 뽑아서 세계 일류의 제품도 만들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키워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산업성장의 정체에 따른 인력수요의 정체에 있으며 이공계인력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마땅히 '제도'적인 문제이며 국가의 몫으로서 국가가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제도'적인 전략이 '교육과정'이라는 화살로 변하여 대학으로 날아오고 있는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분야 평가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역시 평가를 받다 보니 나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평가라는 것이 결국 남이 한 것처럼 나도 갖추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관료적 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그것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할 교육분야에 있어서 나도 남들처럼 따라 하는 것일 수 밖에 없고, 남들이 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실력만 갖추게끔 하는 것이라는, 모방을 답습하고 실력향상의 기회를 절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평가 대상 학과들이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계량적 잣대를 들이대는 평가주체들에게 평가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벽은 우리의 교육정책이 낙오자를 배출하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였다.¹⁾ 국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좋은 인재가 배출되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훌륭한 시민의 배출이라는 대학의 일차적 기능은 망각한 채, 낙오자는 양산하고 소수의 집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win-lose의 전략으로 기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 대학은 거기에 맞게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형식-내용의 개선의 선순환을 기하고 국가장래의 비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III. 교육과정 고찰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demand)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vision)에 대한 합의, 그리고 개혁방법(methodology)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학인증 또는 공학혁신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정책연구나 교육학적인 측면의 검토도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단지, 미국의 사례와 소수의 기업의 제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여기서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치에 기꺼이 도전하여야 하는 것인가?

좋은 인재를 배출하여 사회와 그 구성원인 기업에 쓰임이 되어야 함은 마땅한 것이지만

1) 조벽, "미국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본 한국의 대학원중심대학 정책과 전망", 교육인적자원부 강연, 2000.

그렇다고 그것이 대학교의 공과대학이 '맞춤식 교육'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왜 '수요창출'의 문화적인 사명을 뒤로한 채, 이익이 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기술주의와 경제주의의 추종자인 기업에 충성하기 위해 '수요지향'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기업은 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미래를 담보해야 할 교육에 비전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가? 교육자들은 상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영향력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어야만 하는가?

교육과정을 말하는 'curriculum'이란 중세시대에 나타난 말로서 하나의 학습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의미했었던 것이 평민을 가르치고자 했던 개혁자들에게 의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학교에서의 학업과정' 쪽으로 통용되고 있다.²⁾

교육과정은 역사만큼이나 다양하다.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지향하면 '교과목'에 충실한 것이 되고 '하나의 지식체계를 전수'하기를 바라는 학문적 전통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주입식교육'이 된다. 이러한 지향은 학문중심지향이라고 불린다. 인본주의적 계몽주의 교육자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무엇'이라는 질문만큼 활발히 진행하면서 교육과정은 '미리 정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교육계획' 까지를 포함하는 집합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획자는 먼저 목적 내지 목표를 결정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향은 과정/성취중심지향으로서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이다. 근대를 지나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맞으면서 교육과정의 기획자보다는 교육의 당사자들인 교사와 학생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과정도 등장하였다. 교육과정을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일련의 학습경험'이라고 지향하면 교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개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교사는 하나의 촉진자일 뿐 학습자의 자율성과 진보에 근거해서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 낸다고 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지향 까지 등장하였다. 이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향의 교육과정은 계획된 학습뿐만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 학습 성과를 구성하므로 '학교에서의 총체적인 경험이 바로 교육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경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교육과정의 지향들은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기초와 전통을 강조하고 공부와 훈육을 장려하는 전통적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사실, 개념 및 기능들을 암기와 반복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있고 따라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의 전달은 졸업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과정/성취 중심의 교육과정은 기업적인 방법론을 닮은 것으로서 효율적인 목표달성과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계량적인 성과의 달성에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습이 구체적인 목표들로 목록화 할 수 있는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

2) Harrow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002, 이부형역,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IVP, 24-32쪽

추다 보니 결국 더 중요하지만 쉽게 측정되지 않는 목표들은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 방법론에 치중하다 보니 다른 장기적인 비전들은 고려하기 어렵다든지, 교육의 영적, 윤리적, 심미적 차원을 간과하지는 않는지 등의 많은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구성주의지향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을 본질적으로 선하며, 자율적인 경험에 의하여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주관적인 지식체계와 의미를 창조해 낸다고 하는 진보적인 상대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비판적 해득력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슈를 탐구하며 하나의 정답도 없고 틀린 답도 없다. 그러나 개방성과 탐구와 창조라고 하는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진리체계의 진공상태에서 시작하는 구성주의는 점차 공통적인 윤리적 책임감과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시민을 쏟아 내므로써 사회적 일체감의 붕괴현상을 낳아가고 있다. 따라서 다시 전통적 교육과정 지향을 필요로 하는 진자현상이 일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진보의 주기가 약 10년에 걸쳐 일어난다고 한다.³⁾

교육과정에는 여러 차원이 있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의 지침을 준비하여 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교과서에는 정부의 지침들과 교육가, 학부모들의 기대하는 바를 고려하여 내재적 교육과정(inherent curriculum)인 교과서를 만든다. 교사들은 이러한 내용과 학교별, 수준별, 주제별 수업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이 의도적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um)이 된다. 이상에서는 의도하는 바, 목표를 일련의 계획으로서 공적인 문구로 명확히 언급되는데 이것을 명시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이라 한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의미 있게 경험하고 획득한 교육과정(attained curriculum)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명시적 교육과정과 획득된 교육과정의 사이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배워지는 내용이 항상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또는 암묵적 교육과정(implicit curriculum)이라 부르는데, 때로는 교사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오히려 우세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⁴⁾

이는 오늘날의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은 결코 특정한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포함해야 한다” 고 하는 소위 ‘중립적 교육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가치는 진실의 범주에 넣을 수 없으며 주관적인 신념일 뿐이라고 하는 현대의 지배적 세계관의 영향력 때문이지만, 동서고금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가치와 생활의 신념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Spencer의 저 유명한 교육과정 질문인 “무엇이 가장 가치있는 지식인가?”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⁵⁾ 우리는 학생들이 개념과 사실의 공적 교육과정 못지않게 제도적 양식과 관행의 ‘숨은 교육과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⁶⁾

3) John Bolt,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1993, 이정순 역, 《이야기가 있는 학교》, IVP, 15-47쪽

4) 정정미, “무엇을 교육하는가”, 오인택 편, 《기독교 교육학 개론》,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305-332쪽

5) Spencer, H., Essays on Education, London, 1911, 이부형역,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IVP, 44쪽

6)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1993,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IVP,

공학인증은 교육과정지향 중에서도 과정/성취 중심지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전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아주 상세한 방법론을 담은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공학인증은 교육에 있어서의 품질보증 즉, ISO 9000 시리즈라고 주장할 만큼 계량적이고 학생을 제품으로, 학과를 공장으로 대입시키고 있다. 이 옹호자들은 어떤 지식과 기술들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적과 더욱 심오한 가치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자신들의 경향에 대해서는 얼버무린다. 또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전인적인 학생을 제품정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유기적이고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인 학생들을 몇 개의 데이텀과 공차, 공정요소들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입시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맞아들어 갈 리가 없다. 교육을 정량화 하여 수치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아무리 제조공학의 분야에서 효율성을 인정받은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육학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주체에 의한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의도와 이론을 가졌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법론으로 인해 실패한 여러 가지들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면 교육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가 많고 또 학생은 학습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통해서 보다는 많은 경우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의 방법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반응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볼 때, 공학인증은 고등교육의 교육학적 견지에서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공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성과중심' 이나 '수요지향', '표준화'의 틀로서 하나의 공식적 내지는 명시적 교육과정으로 묶으려 하는 지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IV. 기독교적 교육과정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실한 것이라면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적으로 학문에 임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고백을 바탕으로 한다.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분의 말씀 속에 나타난 계시에 의존한다. 이 말이 곧 성경의 적용이 현존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상세한 공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과 희생의 삶을 요구하심을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하는 제자가 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성경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숨겨진 재능과 은사들을 발현하도록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경이 서로 화평하라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성경적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면서 그러한 이상을 고양시키는 교육과정을 위해 매일 진력해야 한다.

기독교적 교육과정은 성경적 가치들과, 삶의 다양한 양식들을 반영해야 한다.⁷⁾

- 성경적 주요 가치들: 영적 가치, 도덕적 가치, 정치/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언어적 가치, 분석/논리적 가치, 미학적 가치, 심리적 가치, 건강/신체적 가치, 물리/생물학적 가치, 수학적 가치
- 삶의 양식들: 시간적/공간적, 논리적/수학적, 구두적/언어적, 음악적/음률적, 신체적/운동적, 관계적/사회적, 내적/성찰적, 과학적/자연적

노벨이 말한 것처럼, 성경적 가치를 육성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재생산 능력을 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결정적인 것이다.⁸⁾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학생에게 ‘당신은 얼마나 똑똑한가?’ 라고 묻기보다는 ‘당신은 어떤 점에서 똑똑한가?’라고 물어야 한다. 즉, 학습은 학생들이 상이한 삶의 양식들을 사용하도록 이끌어 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고등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사실상, 기술은 사람들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의 감각을 가지고, 기술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는 컴퓨터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차원, 불법적인 다운로드라든지 컴퓨터가 어떻게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한다고 그것이 언제나 사회적인 진보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등의 비판적 식견을 길러야 한다.

V. 나가는 말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에 머무르는 4년여 동안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양육한다. 그러나 만약 학생의 졸업 후 전체 인생의 향로를 놓고 본다면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고작 내가 가르친 것은 투상법을 이용하여 설계도를 그린 다던지, 어떻게 하면 미분방정식을 근사하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라고 회고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교사는 자신의 결론이 어떤 신념과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좋은 교사는 도덕적·종교적 관점을 유지하고, 표현하고, 변호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를 계발하고 더욱 깊고 충만한 방법으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유능하고, 분별력 있고, 책임감 있고, 응답하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다.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는 것은 진리로 안내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숨막히는 기독교의 옷으로 옅어매는 것이 아니다. 브루멜른은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준비할 때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점을 상기시켜 준다.⁹⁾

7) Harrow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002, 이부형역,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IVP, 75-123쪽

8) David Noebel, *Understanding the Times: The religious worldviews of our day and the search for truth*, Eugene, OR, Harvest House, 앞의 책, 77쪽

-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적·기독교적 유산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 학생들이 정상적인 합리적 책임감 속에서 자라도록 격려해야 한다.
- 교사는 헌신을 가르치기 원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앞에서 여러 교육과정 지향들을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각각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육과정의 의도나 목적에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시적인 진술문을 만들고 진술문이 문서로만 남고 곧 잊혀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학교 내에서 항상 가시화 되어야 한다.¹⁰⁾ 예를 들어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잘 다듬어진 주제진술문, 학습 목표, 핵심질문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의도된 명시적인 교육과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는 셈이다. 가령, 막대한 재정적 혜택을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정부의 교육과정 요구에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된다.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덕적 상대주의와 진보적인 교육운동의 후풍으로 우리 사회는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응집력 있는 인식의 결여와 가치의 혼란기를 맞고 있다.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보존하는 일은 점차 기독교 학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공적인 기능이 되어 가고 있다.¹¹⁾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교는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고객들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장모델이 진정 교육에 적합한 것일까? 블룸은 현재의 학교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능력이 전무한 ‘기술적 잡탕’이라고 주장한다.¹²⁾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곳이어야 한다. 도슨은 “기독교 고등교육의 전통이 계속 존재하는 한, 현대 기술사회에서 세속주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고 외친다.¹³⁾ 이 시대에 기독교 교수는 주류의 문화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지향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들과 방법들을 가려내고 인간의 모든 다양한 양상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전적 시각을 갖는 진정한 교육자이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거룩한 확장자”로서 사람이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신앙과 학문, 신앙과 문화를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¹⁴⁾ 기독교대학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상상력을 활용하여 개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9) 앞의 책, 19-24쪽

10) Albert Greene, *Helps for Preparing a Statement of Educational Objectives for Schools*, Seattle, Alta Vista, 1984.

11) John Bolt,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1993, 이정순 역, 《이야기가 있는 학교》, IVP, 49-99쪽

12)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앞의 책, 146쪽

13) Dawson, *The Crisis of Western Education*, 앞의 책, 99쪽

14) 윤상헌, 한국적 상황에서 본 기독교대학의 의미, *통합연구* 42호, 통합연구학회, 87-88쪽

박문식(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박사로서 현재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직중이며 기독교학술동역회 대전지부에서 활동 중이다.